

# '눈이부시게' 평범해서 더 공감 가는 헤자네 패밀리



‘눈이 부시게’ 헤자네 가족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랑법이 따뜻한 웃음과 깊이가 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JTBC 월화드라마 ‘눈이 부시게’ (이남규 김수진 극본, 김석운 연출)가 감동의 깊이를 더해가며 찬사를 받고 있다. 70대로 갑자기 늙어버린 스물다섯 헤자(김해자)의 일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들의 가치 스쳐 지나가는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눈이 부시게’는 시청률 10%를 돌파, 분당 최고 시청률 12.7%까지 치솟으며 지상파를 포함한 1위에 올라 월화극 최강자로 등극했다. (전국 기준 8.4%, 수도권 기준 10.8% /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자극 없는 눈부신 감성과 공감의 힘으로 일궈낸 거침없는 상승세에 의미가 더 깊다.

아빠(안내상)를 구하기 위해 수천 번 시계를 돌리고 70대로 늙어버린 헤자(김해자/한지민), 좌절하고 방안에만 틀어박힌 헤자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은 변치 않는 가족들의 사랑이었다. 다시 나타난 시계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서 헤자는 가족을 택했다. 그리고 헤자의 가족들은 스물다섯이든, 70대든 같은 모습으로 헤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각각의 방식으로 헤자에게 사랑을 주고 힘을 주는 가족들의 모습은 코끝을 찡하게 만든다. 화목한 일상 너머 저마다의 문제까지 따뜻하고 깊 있게 바라보는 시선과 이정은, 안내상, 손호준의 현실감 넘치는 연기까지 더해지며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에 가족들이 보여주는 3색 사랑법을 짚어봤다.

**# 언제나 헤자 편...강인한 엄마 이정은의 든든한 사랑법**

엄마는 강하다. 어려운 가정 형편

## 강인한 엄마· 아빠의 섬세한 사랑법 등 보여줘

하지만 생활력 강하게 이끌어 온 것도 엄마(이정은)였다. 스물다섯 딸이 70대 노인이 된 상황에서도 당황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방에 틀어박힌 헤자의 매 끼니를 챙기고, 나이 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든 꽃처럼 말라가는 헤자를 일으켜 직접 열색을 해줬다. 일어설 수 있는 연료를 불러넣어 준 것은 언제나 엄마의 몫이었다. 누구보다 헤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엄마(이정은)가 가능한 일이었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 단혀서 못 나오는 헤자를 이해하고 매일 말을 걸어줬고, 백화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은 헤자를 보지마자 말없이 끌어안아 위로했다. 혹여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하는 헤자에게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엄마. 힘든 갱년기를 겪으면서도 티저마다의 문제까지 따뜻하고 깊 있게 바라보는 시선과 이정은, 안내상, 손호준의 현실감 넘치는 연기까지 더해지며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에 가족들이 보여주는 3색 사랑법을 짚어봤다.

**# 조용함 속에 담긴 커다란 마음...큰 울림 있는 아빠의 섬세한 사랑법**

말없이 헤자 앞에 앉아 발톱을 깎아주는 아빠의 마른 등은 애뜻하고 가슴 아리다.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헤자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면 조용히 일어나 해결해주는 아빠의 섬세한 사랑. 헤자가 놀랄까 봐 의욕임을 드러내지 않고 아픈 다리도 경미 일을 하며 가족들을 책임지는 아빠는 여전히 헤자의 버팀목이다. 그런 아빠(안내상)에 “든든했어. 내 편 들어줘서”라고 속내를 한 번씩 드러낼 때의 울림은 오래도록 가슴을 뜨겁게 한다. 어떤 말 한마디보다 헤자를 향한 아빠의 정 깊은 눈빛은 마음을 울리며 딱딱한 순간을 자아낸다.

## # 하찮음부터 오빠까지...변함없는 영수의 촌데레 사랑법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는 부모님에게도 늙어버린 헤자에게 적용기가 필요했지만 오빠 영수(손호준)만큼은 그런 적용기 따윈 필요 없었다. 스물다섯 헤자에게도, 70대 헤자에게도 영수는 잔내를 유발하는 여전히 한심한 호적 메이트 영수. 엄마가 헤자 뒤편에 챙겨주는 만무를 몰래 훔쳐 먹거나 가족했다 돌아온 헤자에게 리본을 묶어주고 시키는 것은 양반, 별사탕 갑부가 될 생각에 헤자에게 혼나는 모습과 잠 방울 쏘고 숨겨두거나 돌아온 헤자에게 등을 내밀어 주는 따뜻한 오빠 미도 보여준다.

그때도 눈물비람으로 헤자를 찾아 나선 사람도 영수였고, 헤자의 자체 신체검사로 군말 없이 함께 했다. 헤자가 남긴 편지를 엄마, 아빠 몰래 숨겨두거나 돌아온 헤자에게 등을 내밀어 주는 따뜻한 오빠 미도 보여준다.

눈에 보이는 환장이지만 없으면 섭섭하고 가끔씩 든든하기도 한 촌데레 사랑법. 영수의 변함없는 철없는 헤자를 여전히 헤자일 수 있게 만들며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한편 사별 할머니(정영숙)의 죽음으로 충격 엔딩을 선사한 ‘눈이 부시게’ 9회는 11일 오후 9시 30분 JTBC에서 방송된다.

##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 연장방송 요청 쇄도하는 까닭



여기에 탐사가 진행될수록 전현무-설민석-문근영-다니엘 린데만의 깊어진 케미가 더욱 빛을 발하며, 강화도 편 김영욱, 제주도 편 고두심, 일본 편 최희서까지 맞춤 게스트의 특급 활약으로 더욱 흥성

MBC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이 매회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토요일 온 가족의 필수 분방사수 예능에 등극했다. 한반도부터 바다 건너 일본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흔적들을 되돌아 보고 다시 생 각하게 만드는 신선 영향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연장방송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3월9일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 4회에서는 정방폭포에 숨겨진 슬픔의 역사인 제주 4.3 사건 이야기와 배우 최희서와 함께 바다 건너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선을 지키고자 했던 독립투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의 현장을 찾는 모습이 공개됐다.

3월10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 4회는 수도

권 가구 기준 1부가 5.0%, 2부가 6.9%를 기록했고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2위를 차지했다. 최고 시청률은 8.5%(19:47)까지 올랐으며, 이는 기존의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수치로 눈길을 모은다.

또한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에서는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으로 1부가 2.9%, 2부가 3.8%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4주 연속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은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반도 아픔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교과서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에서 머리와 마음으로 새기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 이야기를 전해줘 다음 여정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이번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에서는 문근영과 최희서가 각각 제주도과 일본에서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마주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 진한 여운을 안겨줬다.

최희서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과

전문가 방불케 하는 자세한 설명으로 ‘박열로드’ 탐사를 이끌며 시선을 모았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일본의 중심에서 독립을 위해 몸 바쳐 항일투쟁에 나선 조선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현장과 김구와 김원봉 의열단 김지섭 의사, 한인 애국단 이봉창의 숭고한 희생이 서린 ‘의거로드’ 현

장을 탐사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줬다.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은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선들이 생기기 되기까지의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발로 터는 탐사예능으로, 전현무-설민석-문근영-유병재-다니엘 린데만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 ITZY, 괴물 신인의 거침없는 질주

신인 걸그룹 ITZY의 거침없는 질주다. 이미 ‘괴물신인’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릴 정도로 한 달 만에 존재감을 확실하게 다져낸 ITZY. 눈부신 성과로 의미 있는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ITZY의 활약이 대단하다. 데뷔한 지 10일 만에 음악방송 첫 1위를 기록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7관왕에 올랐다. 음원차트에서는 통란을 이어가고 팬덤도 탄탄하게 다지며 차근차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기대 이상의 성과들로 차세대 걸그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ITZY는 지난달 12일 데뷔 싱글 ‘나지 디퍼런트(IT'z Different)’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걸그룹 원더걸스와 미쓰에이, 트

와이스를 배출해낸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주목받은 만큼, 데뷔와 동시에 화력을 터트렸다.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덤까지 형성되면서 데뷔와 동시에 글로벌 걸그룹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

ITZY는 데뷔곡 ‘달리달라’를 발표하며 음원차트 1위로 데뷔하게 됐다. 한 달 동안 꾸준한 음원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통란 히트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 데뷔곡으로 음원차트 1위에 진입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물론, 통란 중이라는 점 역시 주목된다. 팬덤만이 아닌 ITZY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ITZY는 탄탄한 팬덤과 대중적 인기로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석권하고 있는 것. 지난달 21일 데뷔 10일 만에 케이블채널 엠넷 ‘엠카



운트다운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KBS 2TV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까지 지상파 음악방송도 접수했다. 한 주 만에 달성한 것이 아닌 꾸준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려 7관왕의 기록을 쏟아내며 ‘JYP의 신인’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해준 ITZY다.

ITZY의 거침없는 질주는 이미

데뷔와 동시에 예고되기도 했다. ITZY는 데뷔곡으로 일본, 홍콩, 대만 등 9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 ‘달라 달라’ 뮤직비디오

오는 공개 44시간 50여 분 만에 3천만뷰를 돌파, K팝 데뷔 그룹의 기록들을 써내려 갔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ITZY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 ITZY는 ‘달리달라’ 발매 이후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 3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ITZY가 데뷔와 함께 이 차트에 처음 진입하며 톱10에 2곡을 랭크시켰다’라고 관심 있게 보도했다. 또 빌보드 유튜브 차트에서도 2위에 올라 ‘K팝 데뷔 가수로는 최고 기록’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음력 2월 5일)

<p><b>▶ 쥐띠</b>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라. 행복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지 누구한테서 얻는 것이 아니다. ㄱ, ㄴ, ㄷ, ㄹ 성씨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나 자신을 찾아 용기백배할 때 모든 일 순조로울 듯.</p>	<p><b>▶ 용띠</b> 구상력이 뛰어나지만 자신감이 부족해 추진을 못하는 격이다. 생각만큼 계획한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짧은 생각으로 결정을 쉽게 내리면 중도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있다. 끝까지 후회할 일만 만들지 않으면 순조로울 듯.</p>	<p><b>▶ 원숭이띠</b> 노력에 비해 결과는 작지만 투자하는 마음으로 현 상태를 고수한다면 보람을 찾을 수 있다. 그래도 밀 빠진 돌에 물 붓는 금전운이다. 2, 8, 11월생 애정불만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좋으나 가정은 꼭 지키고 북서쪽 사람은 피함이 좋을 듯.</p>
<p><b>▶ 새끼띠</b> 친지간에 덕이 없어 베풀고도 원망만 듣는다. 애정에는 진실한 정이 필요한 때이니 솔기롭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함이 좋을 듯. ㄱ, ㄷ, ㄹ 성씨 진실로 사랑한다면 한번쯤은 상대방 말을 믿어줌이 좋을 듯. 4, 8, 11월생 자급난 심각.</p>	<p><b>▶ 돼지띠</b> 여러 사람을 마음에 두고 진실이 흐려진다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 ㄱ, ㄷ, ㄹ 성씨 이정표 없는 거리에서 헤매는 격. 남, 동쪽 사람과 의논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을 택하라. 자신감이 필요할 때.</p>	<p><b>▶ 닭띠</b>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관망하며 근신하는 것도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사랑에도 강약이 있다. 그 리듬을 타야 행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7, 9, 12월생 원숭이, 돼지띠와 함께하면 길하다.</p>
<p><b>▶ 호랑이띠</b>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친구를 대동하지 마라. 삼각관계로 우정이 깨질 우려가 생길 수. 좋아했던 사람은 멀리 떠나고 새로운 사람 또 만났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구나. 1, 2, 11월생 사랑한다면 적극성을 보여라.</p>	<p><b>▶ 말띠</b>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인내심도 강하지만 결정적일 때 남보다 늦는 것이 단점이다. 견조함 중사자는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이성관계로 구설이 따르니 조심하라. ㄱ, ㄴ, ㄷ 성씨 아직 늦지 않았으니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라.</p>	<p><b>▶ 개띠</b> 남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는데 이 내 마음에는 답답함과 그리움만 쌓인다. 양다리에 한쪽을 선택할 운명이니 지혜와 솔기롭게 내가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중요한 날이다. ㄱ, ㄴ, ㄷ 성씨 건강 주의. 신병으로 고통당할 수.</p>
<p><b>▶ 토끼띠</b> 어렵고 힘든 시련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 솔기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겠다. 3, 7, 10월생 나를 따른다고 무조건 만나거나 경거망동하지 마라. 한순간 실수로 후회할 일 생긴다. 북동쪽 사람을 조심하라.</p>	<p><b>▶ 양띠</b> 하고 싶은 일들은 많고 포부도 크지만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힘에 겹다. 자존심이 강하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한 때임을 알라. 자기가 부린 것은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ㄱ, ㄷ, ㄹ 성씨 남에게 위임하면 관재 있다.</p>	<p><b>▶ 돼지띠</b> 결단성이 필요한 때. 벽력 있는 추진력과 앞날의 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니 고독과 눈물뿐이구나. 당신 한 사람으로 여러 명이 방황하고 있다. 부족한 원인을 재점검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자세가 필요.</p>